

## 물길을 이어주는 사람들



관련기관  
코너

1

River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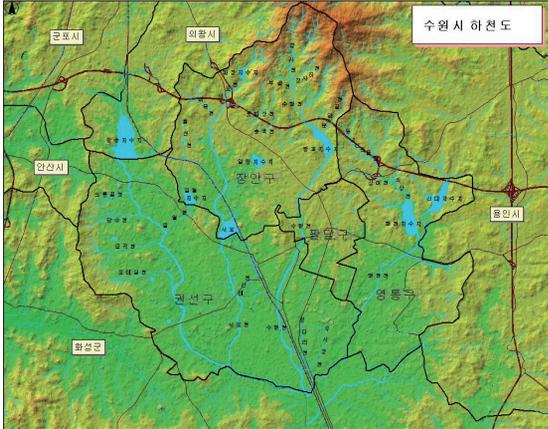
고 윤 주 | 수원하천유역  
네트워크 활동가  
(up@suwonriver.org)

수원지역의 첫 이름은 “모수국”, 고어로는 “매홀”로 물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 수원은 대대로 물이 풍부해 항상 이름에 “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이후 “수성군” 그리고 “수원”이 됐다.

수원의 이름은 “물별”이다. 이름에 걸맞게 하천이 발달되어 있다. 서쪽으로부터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 4대 하천 모두가 수원시 혹은 인근에서 발원하고 4대 하천 모두가 수원시에서 모여 황구지천이라는 이름으로 남하하고 있다. 즉 수원시의 4대 하천은 모두 수원에서 발원하고 수원에서 모두 모이고 수원시를 관통하고 있다. 아울러 4개 하천 모두가 2개 이상의 저수지를 갖고 있다. 수원시의 수계는 이러한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http://www.suwonriver.org>



수원의 중앙하천인 수원천은 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도 관통하고 있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수원시 일원에 광교저수지,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파장저수지, 서호, 왕송저수지, 일월저수지라는 크고 작은 저수지를 갖고 있다.

수원은 한마디로 '물의도시'이다.

수원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광교저수지 상류는 광교천 경기교부터 수원천이라 하며, 수원의 도심을 흐르고 있는 도시형 하천으로 대화교동의 황구지천 합류지점까지 유로연장은 16km, 유역면적은 25.37km<sup>2</sup>, 유역평균폭은 1.58km인 하천이다.



서호천은 황구지천의 상류부에 위치한 수원의 4대 하천 중의 하나로 수원시 북쪽 파장동의 파장동산(367m)에서 발원한 후 남하하여 2.5km 지점인 이목동에서 좌측으로 이목천이 유입되고 정자동 지점에서 영화천과 합류하여 서호저수지를 거쳐 장지동에서 황구지천과 합류되고 유로연장은 13.2km

의 지방하천이다. 권선구, 장안구 등을 포함하며 유역면적은 30.50km<sup>2</sup>, 유역평균폭은 2.31km이다.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한 황구지천은 유하하면서 금곡천과 합류, 수원의 서남부에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과 합류하여 황구지천을 형성하며 화성시를 거쳐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에서 오산천, 진위천과 합류하여 진위천으로 명칭이 바뀌어 서해로 유출된다. 유로연장은 18.25km, 유역면적은 85.63km<sup>2</sup>, 유역평균폭은 4.70km이다. 황구지천은 비교적 저평지의 농경지가 하천 연변에 발달해 있으며 상류에 왕송저수지, 일월천 유역에 일월저수지, 서호천 중류 및 상류에 서호저수지, 일왕저수지가 위치하며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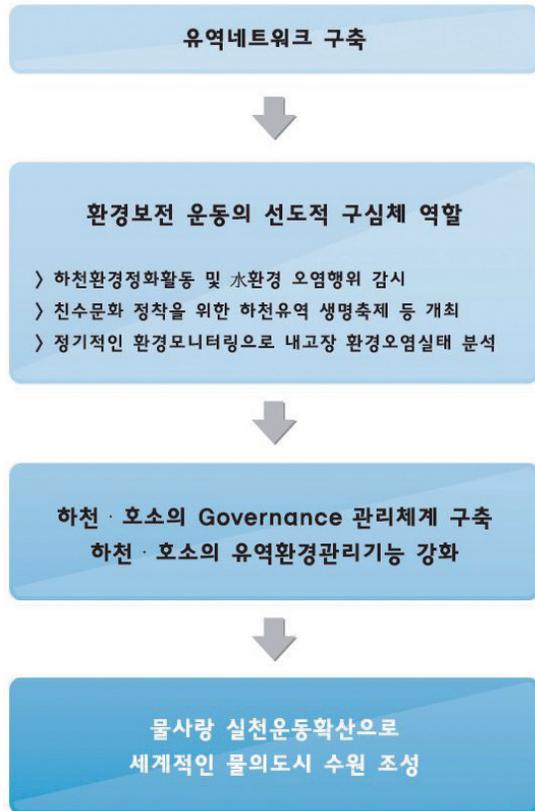


원천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여천과 가산천을 통해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로 유입된다. 원천리천은 전체 유로연장은 약 12km, 유역면적이 39.75km<sup>2</sup>, 유역평균폭은 3.67km이며 원천저수지로 유입되는 지류인 여천의 유로연장은 약 3.3km

이다. 원천교를 기준으로 상류쪽의 원천천 상류지역과 백년교까지 중류지역, 그리고 백년교에서 황구지천 합류지점까지의 하류지역으로 구분된다.



2011년 출범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31개의 하천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기업, 학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의 주요사업으로는 ▲ 하천·호소

탐방 ▲ 하천의 불법행위 및 오염원 조사 ▲ 하천학교 ▲ 청소년 물포럼 ▲ 시민참여의 하천 개선활동 ▲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2013년은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중점에 두고 있다.

또한 1년여 동안 하천 및 호소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원시 하천·호소 생태적 식생관리 매뉴얼 작성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민관이 함께 매뉴얼을 통해 식생관리를 하고 이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물문화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물론 4대 하천별 청소년 하천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원시 청소년 하천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해서 한·일 청소년 물포럼,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물포럼을 지난 2년 동안 진행하였다.



올해는 미래세대 물과 문화라는 주제로 여름방학에는 수원의 4대 하천을 돌아보고 각기 주어진 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하천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명(인간포함)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다. 겨울방학에는 1년간의 활동을 총화하는 콘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수원의 4대 하천과 호소를 생태적 관점과 하천의 시설물 중심으로(공학자와 함께) 돌아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과 함께 하천탐방을 통해 하천의 개선점, 생태형 하천관리를 위한 단체의 역할들을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참가자는 하천안내자이며 지속적인 하천모니터링과 하천의 문

제점을 진단하고 제안하며,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천과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해 연도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통해 각 유역별 조직활성화 방안, 하천의 개선방향,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활동 전개 등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하천운동의 전망을 제시한다. 물론 1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의 하천관련부서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최종사업보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하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유역별로 발표하고, 시는 하천하수과와 물관리과에서도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거버넌스는 시작된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5월이면 출범한지 3년이 된다.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하천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 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한 조직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시민이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하천운동, 다음 세대의 하천보전운동 활성화방안 개발 및 지원, 문화와 흥이 있는 하천만들기 등 물길을 이어주는 사람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가 수원시민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

